

2012. 11

다양성 안에서 일치  
추구하는 다일공동체

www.dail.org

다일  
공동체

우리 모두 행복을 위하여...

*For our Happiness*

보이지 않는 마음  
닿을 수 있습니다



# “같은 것도 감사지만 다른 것도 감사뿐이네...”

주님의 평화가 후원회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가을의 높고 푸른 하늘과 선선한 바람,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설곡산 산책로를 공동체 가족들과 함께 올랐습니다.

캄보디아와 네팔에서 온 해외다일의 가족들과 어른, 아이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가을 산을 산책하며 삶을 나누는 자리이기에 더욱 더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에 같은 날씨에 같은 산을 오르는 우리들이었지만, 서로가 너무나 다른 모습들로 마주했습니다. 그런 서로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한바탕 크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가족들은 내복에 모자까지 쓰고, 담요도 걸쳤기에 한겨울 옷차림으로, 네팔에서 온 가족들은 초겨울 옷차림으로, 그리고 한국의 가족들은 얇은 옷차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설곡산에서 한국, 네팔, 캄보디아 아이들과 함께

두꺼운 옷을 걸쳐 입고도 연신 “하아~~ 추워요!” 를 외치는 캄보디아 형제에게, 네팔 가족들이 서툰 한국말로 웃으며 이야기 하더군요. “어머머, 이 정도면 시원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묵안리의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 했습니다. “와아, 오늘 햇살 진짜 너무 따뜻해요”

이렇게 사람마다 문화와 기후와 습관과 전통이 다르고 생각과 느낌은 더 다른 것을 보면서, 말도 잘 안 통하고 피부색도 다르지만, 서로 다양성 안에서 일치점을 추구하는 다일공동체의 이념처럼 오직 주님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가는 공동체 가족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11월 11일은 다일의 날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숫자가 다 일인 날인데요, 올해는 특별히 밥퍼나눔운동본부 2층에 세워진 서울다일교회의 창립예배와 다일의 날 다시한번 일어서기 행사가 있습니다.

드디어, 청량리에서 예배공동체로 시작했던 다일공동체가 밥퍼에서 예배공동체로 24년만에 새롭게 시작하고 해외분원 각 처소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국을 넘어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탄자니아 미주에서도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다양성 안에서 일치점을 추구하고 일치안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그려보면 감격이 넘치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같은 것도 감사지만 다른 것도 감사뿐이네”

2012년 11월에  
작은형제 **침) 윈 드** 목사 올림





\* 하나님을 기쁘시게

\* 이웃을 행복하게

\* 세상을 아름답게

## C O N T E N T S

- 02 **Focus** 나눔으로 1°C 따뜻해진 세상1 - 만원의 행복
- 06 **Review** 1004 DAY "천사운동 20년, 천사병원 10년"
- 08 **국내 다일의 현장** 다일작은천국
- 10 **국내 다일의 현장** 밥퍼나눔운동본부
- 12 **해외 다일의 현장** 미주다일공동체
- 14 **해외 다일의 현장** 베트남다일공동체
- 16 **KBS 나눔국민대상 시상식**
- 17 **포토 에세이**
- 18 **다일 뉴스**
- 23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들께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 cover story

선, 정혜영 부부는 올해 결혼기념일에도 매일 만원씩 모은 후원금을 전달하고 함께 밥퍼 봉사도 했습니다. 꾸준히 만원의 행복을 실천하는 기부천사들로 인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후원 문의 및 신청 02-2212-8004  
[www.dail.org](http://www.dail.org)





## 만원의 행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에게 만원이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만원이면 커피전문점에서 친구와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죠.”

“혼자서 영화 한편 볼 수 있겠네요!”

“에이, 요즘 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된대요, 5,000원짜리 밥 찾기도 힘든데...”

여기, 다일공동체와 함께하는 기부천사들은 만원으로

한 달에 커피 두잔, 영화 한편, 식사 한 끼를 절약해서 국내외의 소외된 이웃들의 행복을 위해 나누고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나눔은 행복이 배가 되어 기부천사들에게 돌아옵니다.

만원의 행복에 동참해 따뜻한 겨울나기 준비해보실래요?



## 만원의 행복, 그 시작

만원의 행복의 시작은 다일공동체의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의 정신에서 나왔습니다.

24년 전 청량리역 광장에 쓰러진 한 노인에게 밥을 지어드리며 시작된 다일공동체의 소문이 퍼지자 얼마 후 청량리 채소시장 쓰레기터미에는 행려자, 무의탁 노인, 좌판상 할머니, 알코올 중독자, 가난한 어린이 등 80여명이 따뜻한 밥을 먹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모인 80여명의 내일은 기약할 수 없었습니다.

빈 마음과 빈 그릇을 갖고 시장 골목을 들어선 그 때, 채소가게 아주머니가 부르십니다. “내일 아침에 무국 해드리면 좋겠어요.” 이번엔 생선가게 아저씨가 부르십니다. “팔다가 남은 건데 내일 반찬으로 좋을 거요.” 그리고 돌아와 보니 누군가가 쌀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단 한사람, 단 한 끼를 나누기 위해 시작된 일이었는데 이름 없는 많은 이웃들이 내일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다일공동체의 기적은 크기에 상관 없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이웃에게 나누는 따뜻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매월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과 지구촌 가난한 이웃들의 행복을 위하여 차곡 차곡 행복을 쌓아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행복의 열쇠는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만 바라보기보다는,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나누는 것에서 부터 시작한 것이 아닐까요?



## 11월 11일, 다일과 함께하는 만원의 행복 1.1.1.1운동

**1사람이 1달에 1만원 후원하고 1사람 추천하기 운동에 동참해보세요!**

가평군 설곡리 설악면, 이 작은 마을에서 행복한 운동이 시작되고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시내로 들어가보면 여느 마을과 같이 자그마한 가게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상점들과는 다르지만 마을 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가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게들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다일공동체와 함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여 만원의 행복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스카이 주유소, 설악건재, 하우스콜피자, 다하누, 설악한우마을, 설악종묘사 등 한 가게에서 시작한 나눔이 옆집으로, 앞집으로, 이웃집으로 번져갔습니다. 십시일반으로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11월입니다.

“타일공 동체가 하는 일에 함께할 수 있어 뿌듯하고 기쁩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더 도와야 하는데  
많이 돕지 못해 미안한 마음입니다.  
다음에는 더 도와드릴게요.”



“어려운 형편이지만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어  
제가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 하루에 1만원, 기부천사 부부가 1년 365일 동안 쌓아가는 행복

밥퍼를 찾아온 아름다운 기부천사 부부를 식사 하러 오신 분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결혼기념일인 오늘도 변함없이 매일매일 만원씩 정성껏 모은 365만원을 기부한 선, 정혜영 부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그랬더니 선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4년마다 윤달이 있잖아요! 올해는 윤달이 있는 해입니다, 하루가 더 많기에 365만원이 아니구요, 366만원





이에요^^ 366만원을 드린 날이 벌써 두 번째네요. 앞으로도 평생을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밥퍼를 위해 드리길 소원합니다.”

벌써 햇수로 8년째 매년 10월 8일이면 밥퍼에 찾아오는 자원봉사자인 선과 정혜영 부부는 변함이 없고, 꾸준한 다일의 협력대사입니다. 벌써 네 아이의 부모가 되어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나눔 홍보대사이며, 기부문화 선도와 사회공헌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부천사입니다. 이 부부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결혼기념일뿐만 아니라 백일과 회갑기념일 등에 밥퍼로 봉사를 와서 천 여명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데 동참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루에 만원씩 모으기 시작한 일을 이렇게 꾸준히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선, 정혜영부부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부천사 선, 정혜영 부부

- 일 만원**으로 국내 밥퍼에 오시는 가난한 이웃 5명의 식사를
- 일 만원**으로 해외 밥퍼의 30명의 아이들의 영양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한 끼 점심을
- 삼 만원**으로 한 명의 아이에게 학비와 학용품비가 전 달되어 학교에 다닐 수 있으며
- 백 만원**으로 한 마을에 두 개의 우물이 생겨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366만원을 모이온 부부를 축복하는 최일도 목사

Review  
1 0 0 4  
D A Y



# “천사운동 20년, 천사병원 10년!” Review

10월 4일 설곡산 다일공동체에서 천사데이(1004 DAY) 행사가 있었습니다.

다일천사병원을 세우기까지 10년, 운영된 지 10년이란 시간동안 함께해 주신 날개 없는 천사분들을 초대하였습니다.

먼 길까지 한걸음에 달려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가족이 없고, 돈 한 푼이 없어서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는 이들을 위한 한국 개신교 최초의 전액무료병원으로 태어난 병원, 타지에서 외롭게 지낼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외국인 근로자들의 친구가 되어준 고마운 병원, 제3세계 가난한 이웃나라 빈민촌 아이들을 위한 B.C.P(Beautiful Change Project)를 기획 운영하는 아름다운 병원, 이렇게 다일천사병원이 세워진 것도 기적이지만, 지금껏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더 큰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 감사, 감사를 올려 드리며, 천사운동에 참여해주신 구천 명이 넘는 천사 후원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곧 만 명이 넘는 천사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호천사가 되기를 다짐하는 가슴 벅찬 날을 기다립니다.





- ①② 먼곳까지 달려온 천사들과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날
- ③ 천사 병원이 개원 10주년 천사운동 20년, 모두 주님의 은혜
- ④ 항상 아낌없이 섬겨주시는 박혜란 원장님과 김명선 의사선생님
- ⑤ 새로 부임한 이선영 의원원장님의 감동의 취임사
- ⑥ 항상 환우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남연옥 주방장님
- ⑦ 행사의 기쁨을 더해준 공연

# 1004

“ 앞으로도 다일천사병원은 ‘하나님은 고치시고 우리들은 봉사하는’ 처음의 정신으로 몸뿐만 아니라 마음을 치료하는 병원, 보이는 것의 변화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의 변화에 더욱 헌신하며 귀하게 쓰이는 병원으로 지구촌 이웃들의 천사가 될 것입니다. ”

또한, 당신이 바로 천사입니다.



임종을 앞두고 아내와 15년만에 해후를 한 김세동님

## “아, 좋아 죽~겠어요!”

다일작은천국 창 밖 가로수들이 이제는 꽤 깊은 단풍 빛깔로 아름답게 채색되어가고 있네요. 자연은 그 아름다움 만큼이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참 그윽합니다. 천지만물의 질서정연한 운행과 그 신묘막측한 조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노라면, 저절로 겸손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저절로 무릎을 꿇게 되지요.

### 마지막 소원은 가족들과 화해하는 것

그 동안 작은천국에서는 몇 분이 이 지구별을 떠나 저 하늘 큰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작은천국의 사명이 이 땅에서 거리를 방황하며 외롭게 지내던 나그네들에게 평안한 임종과 천국환송을 해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한 울타리 안에서 동고동락했던 분들과 영원한 이별을 한다는 건, 솔직히, 아직도 마음이 짠~하고, 슬프고, 아프곤 합니다.

그러나, 호프님을 천국환송 하면서 저희는 슬픔 중에도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호프님은 생전에도 서글서글한 성품과 원만한 관계이긴 했습니다. 특히 노숙인들을 위한 다일영성수련 “다시한번 일어서기”를 통하여 큰 은혜를 경험하였던 터라, 마지막 시간 동안 확고한 천국소망을 품고 평안하게 보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환송을 하며 행복했다고까지 표현하는 것은, 호프님의 마지막이 너무 감동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호프님의 마지막 소원은 가족들과 화해하는 것이었고, 특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혼이 불가피했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부인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미안하여서 부인에게로 돌아가지 못 하고, 어느 때는 사무치는 그리움을 달랠 길 없어 남의 집 담장 너머로 부인의 얼굴을 몰래 훑쳐보았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너무 가슴이 저려와 괜스레 너스레를 떨면서 응수했지만, 그의 소박한 꿈을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가 지구별을 떠날 시간이 가까워 올 무렵 드디어, 꿈에 그리던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15년만의 해후였습니다. 호프님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우리도 다 함께 기뻐했지요.

제가 좀 짓궂음이 발동하여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 좋아 죽~겠어요!”

그리고, 며칠 후,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그 부인과 딸들이 지켜보는 중에 거두셨습니다.

너무도 평안한 얼굴로.. 좋아 죽~겠다는 표정으로..

우리는 호프님의 천국환송식을 어떻게 해드릴까 논의하다가 좋은 장례식장을 빌려서 가족장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처음엔 유족들이 당황스러워서 망설였지만 우리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그 동안 관계가 단절되었던 친인척과 지인들이 찾아오고, 딸의 회사와 교회에서도 찾아와 위로해주었습니다. 마지막 날, 발인 예배를 앞두고 친족들은 그의 유골을 가문의 선산에 받아들이기로 결정해주었습니다.

하마터면 유족들이 주변에 쉬쉬하며 가슴앓이 하면서 몰래 할 뻔했던 천국환송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인과 딸들이 애도하며 그의 빈소를 지켜드렸고 마지막 사랑을 듬뿍 드렸던 것입니다.

### 남겨진 가족들의 아름다운 고백

천국환송을 마치고 한달 가량이 지난 후 딸들이 작은천국을 찾아왔습니다.

아, 글썄, 그 이쁜 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감사헌금을 놓고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 아빠를 천국으로 보내드리면서 참 많은 걸 배우고 깨달았어요. 사실은, 아빠를 미워했거든요. 우리 어릴 때 집을 나가버린 아빠, 엄마와 우리를 너무도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아빠, 근데 그런 아빠가 뒤늦게 암에 걸려서야 나타난 걸 보고는 기가 막혔어요. 아픈 아빠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표현도 못 하고... 정말 아빠가 미웠지만, 엄마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말도 못 하고... 혼자 많이 울었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암말기 몸으로 작은천국에서 잘 지내시다가 천국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고 마지막 임종도 그렇게 평안하게 맞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정말 우리 아빠가 천국 가셨구나,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다시 만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를 천국으로 보내드리면서 참 많이 슬펐지만, 이상하게도 아빠에 대한 미움이 다 사라졌어요. 오히려 아빠가 불쌍하게 느껴졌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보고 싶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남은 가족들은 뽕뽕 뭉쳐서 사랑이 더욱 깊어졌어요. 무엇보다, 동생이 교회를 나가겠다고 해서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으로 감사해요. 그냥 감사한 생각만 들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제 저희도 여기 작은천국을 통해서 천국환송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대로 앞으로는 저희보다 약한 누군가를 위해 봉사를 하면서 살고 싶어요.”

“호프님!! 그 곳 천국에서 잘 지내시죠? 딸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아... 네... 좋아죽~겠다구요!”



## 밥퍼는 ○○○이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다보니 올 가을은 웬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퍼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과 기관, 단체, 그리고 공공기관들까지도 '밥퍼가 뭐니 뭐니 해도 이 나라에서 가장 좋은 일을 한다.'면서 마음에 담고 있는 솔직함을 숨기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것 뿐이 아닙니다. 봉사단체 신규신청자들의 경쟁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휴가까지 내고 봉사를 오세요?”

“이렇게 열심히 밥퍼 봉사를 오시는 이유가 뭔가요?”

저의 궁금증에서 시작된 질문들에 봉사자들의 표현은 각각이지만, 하나같이 24년을 이어온 밥퍼의 성실함과 사회의 공헌도 그리고 나눔과 섬김의 현장에서 느끼는 감사와 뿌듯함 등 많은 것을 배우고 간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 하십니다.

봉사를 오시는 분들에게 매번 '밥퍼는 ○○○이다' 라는 소감을 받는데 이번에는 제가 한번 괄호를 채워 보았습니다.

과연, **밥퍼는 밥퍼다!**



## 자원봉사자들이 말하는 밥퍼는?

**밥퍼는 내 미래의 한 모습이다.**

언론으로만 접하던 밥퍼 봉사를 하게 되었다. ‘회사 차원의 행사였지만, 직접 와보니 우리가 회가 아직은 희망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하게 되었다. 미래의 나는 이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한 끼 밥을 먹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모습이든 우리의 사는 모습의 한 단면이리라... 밥퍼의 희망대로 모든 사람들이 하루 빨리 밥 굶는 이 없는 사회가 되어 밥퍼 봉사가 끝나기를 기대해 본다. 가까운 주말에는 온 가족이 밥퍼 나들이 한번 해야겠다.

## 밥 퍼 는 ○ ○ 이 다

**밥퍼는 내일 이다.**

삶에 지치고 고된 분들에게 따뜻한 한 끼의 밥을 드리는 밥퍼는 또 다시 내일을 살아가길 힘을 드리는 것 같다. 이곳은 노인 분들에게 ‘힘을 내서 내일을 또 살라’ 라고 격려 해 주는 곳.

**밥퍼는 곱하기다**

식사를 나눠드리면서 기쁨이 곱해지고, 식사를 드시는 어르신들의 건강도 곱해지는 기본입니다.

**밥퍼는 나를 돌아보게 만든다.**

봉사활동이지만 회사에서 하는 활동으로만 생각했다. 참여하는 의지가 수동적이었는데 하면서 느낀 점은 내가 행복한 사람이고 작지만 조금의 능력이라도 일손이라도 보탬이 되어서 정말 기쁘다.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밥퍼는 살아가는 모습이다.**

한 끼의 식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더불어 나누는 모습이 우리네 살아가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밥퍼는 생명이다.**

끼니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함께 세상을 살아가길 수 있도록 생명을 주기 때문에 생명이다.

**밥퍼는 배부름이다.**

어려운 분들께 식사를 대접하는 일이 쉬우면서도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 회사를 통해 참석한 봉사 활동이었지만 배불리 식사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뿌듯하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 있으면 자주 참석하여 도울 수 있도록 해야겠다.



# USA

## 미주순회 간증집회

### ‘나마스떼에서 자이머시로’



미주다일공동체와 네팔다일공동체 원장을 겸직하는 박종원 목사는 부원장 팀세나 선교사와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미주지역을 순회하며 네팔다일공동체 선교보고 및 간증집회를 했습니다. 네팔인인 팀세나 부원장이 미국비자를 받기란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께서 과정, 과정마다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인터뷰 3일 만에 네팔에서 미국비자를 받는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 여름 네팔대사관에서 일하는 딸 방문차 네팔에 머물렀던 최영선 집사님은 머무는 동안에도 네팔밥퍼센터에서 열심히 봉사로 섬겨주셨는데, 시애틀에서도 팀세나 부원장의 비자 발급을 위해 여러모로 도움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번 미주집회는 다일공동체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네팔인 팀세나 부원장이 함께 미주를 순회하며 어떻게 힌두교도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네팔 빈민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 한국말로 간증을 하여 가는 곳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미 집회를 마친 지역의 다른 교회에서 집회요청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번 집회의 주제는 ‘나마스떼에서 자이머시로’ 인데, ‘나마스떼’는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인사합니다’라는 뜻의 힌두교 인사말이고 ‘자이머시’는 ‘예수님찬양, 할



렐루야 라는 뜻의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말입니다.

이번 집회는 애틀란타 지역에서 10월 6일 연합장로교회, 10일 잔스크리칸인교회, 12일 안디옥교회, 14일 애틀란타 네팔인교회, 유빌라떼 카페, 17일 컬럼버스 반석장로교회에서 뜨거운 집회를 마쳤고, 시애틀을 거쳐 남가주지역에서는 20일 푸른목장교회, 특별히 21일 LA마가교회, 플러튼마가교회에서는 전폭적인 교회의 지원 속에 많은 분들이 감동의 눈물을 쏟는 은혜로운 집회를 가졌습니다. 안디옥교회, 반석장로교회, LA마가교회, 플러튼마가교회에서는 네팔 빈민촌 아동을 위해 특별헌금을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또한 애틀란타 네팔인교회에서는 고국 네팔의 빈민촌 아동을 위해 이날 현금 전체를 후원해주셔서 어찌나 뜨거운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신들도 난민으로 살아가며 낯선 미국 땅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고국의 가난한 아동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 가슴으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속히 애틀란타에 네팔커뮤니티가 정착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카고 지역에서는 23일 벗님모임 후 시카고다일공동체 이숙의 협동간사가 네팔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역하는 스태프들을 위하여 중고차량 구입비로 보태라고 지난 1월부터 모아오던 저금통을 깨뜨려 5천불을 후원해주셨습니다. 24일 한소망교회, 25일 네이퍼빌열린교회에서 계속되는 집회와 26일 버지니아에서의 벗님 및 후원회원모임, 27일 뉴욕에서의 벗님 및 후원회원모임, 28일 뉴욕목양장로교회에서의 집회를 마지막으로 미주 순회를 마쳤습니다. 떠나기 전날 저녁 뉴저지다일공동체 정선희 간사의 집에서 뉴저지 벗님과 후원회원들과의 모임을 통해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 미주 순회집회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 네팔의 가난한 아동들에게는 큰 기쁨을 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중 집회 중인 (좌) 팀세나 부원장 (우) 박종원 원장

글/ 박종원 원장(미주다일공동체)



시카고다일공동체 이숙의 간사가 모은 후원금



자이머시 로 함께 인사합니다.

# Vietnam

## 꿈☆은 이루어진다



“아파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이  
도울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 한 소녀를 만나다

베트남다일공동체 밥퍼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식사를 하는 용이라는 소녀가 있습니다. 용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세 식구입니다. 아버지는 씨클로(오토바이 택시)운전과 학교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며 받은 돈으로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용의 아버지가 몸이 아프셔서 오랜 시간을 일할 수가 없고, 그나마 번 돈으로는 치료를 위해 약을 사는데 쓰입니다. 용은 일을 하러 가신 부모님의 식사도 챙기기 위해 자기 몫의 식판에 담긴 음식들을 도시락(비닐봉지)에 담아 집으로 가져갑니다. 가져간 밥과 반찬은 일을 마치고 돌아온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도 밥퍼센터에서 담아간 밥은 용에게는 꿈을 키우는 힘이 되고, 일을 마치고 돌아온 엄마와 아빠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 용의 꿈은 가난한 이들을 치료하는 의사

용은 얼핏 보기에 초등학생 같지만 18세의 소녀입니다. 집안이 가난하여 어려서부터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18세임에도 초등학생 정도의 체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가 무릎 밑으로 심하게 휘어진 기형으로 태어나 지금까지도 한 쪽으로 심하게 절뚝거리며 걷습니다.

용은 비록 체구는 작고 몸이 불편하지만 밥퍼센터에 오면 아무 소리 없이 식판 닦기와 청소를 통해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용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18세가 되도록 한 번도 학교를 다니거나 공부를 배워 본 적은 없지만 자기처럼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하고 부끄러운 듯 얼굴이 붉그스름해졌습니다. 한 번도 학교를 가보지 못한 용이 의사가 되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싶다는 말이 허황된 꿈이라고 말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용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져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도 희망과 꿈을 심어 주길 소망합니다.

글/ 이종현 원장(베트남다일공동체)

## “행복과 사랑을 느끼고 싶으세요?”

한국에 있을 때 청량리에 있는 다일공동체와 최일도목사님에 대해서는 신문, 방송 등 여러 보도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언젠가 한 번 동참하여 직접 봉사활동과 밥퍼 배식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베트남에서도 밥퍼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이종현지부장님과 사모님을 은행에서 처음 만난 순간, 넉넉한 웃음과 외모에서 처음부터 끌리기 시작하여 밥퍼 활동을 참여하게 된 것 같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최고급 건물에서 일하다가 막상 밥퍼 현장에서 베트남의 어려운 분들을 만난 순간 처음엔 몸에서 전율이 흘러 내렸다. 밥퍼에 오시는 분들은 시내에서 한 참 떨어진 열악한 곳에서 살고 있는데 환경뿐만 아니라 신체장애 등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가슴 깊이 몽글하게 형용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 측은지심이 솟아올라와 같이 도우며 살아야겠다는 느낌이 온 몸을 감쌌다.

처음엔 내가 좋아서 참석했고(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봉사활동 후 돌아가는 차안에서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갔다) 나중엔 우리 가족들과 직원들에게 봉사정신과 나눔의 정을 함께 맛보게 하기 위해서...그리고 우리는 행 거래 기업들과도 동참했다. 갈 때마다 낮은 회사의 이름으로 참여한 사람들과 기업체의 명단이 붙여진 벽이 늘어만 가는 것을 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거래 기업들에 동참하자고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봉사 활동이 한국에 있는 본사에 알려져서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우수 직원들이 6회차에 걸쳐서 200여 명이 다녀갔고 나눔과 봉사의 씨앗들을 가슴에 심고서 돌아가 가끔은 연락도 오고 있다. 처음엔 두 달에 한 번 하던 밥퍼 봉사활동이 요즘은 매월 한 번씩 하고 있다. 현지 베트남 사람들도 이젠 마주치면 서로 인사를 할 정도가 되었다.

나는 밥퍼 활동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행복과 사랑을 느끼고 싶으세요? 그러면 밥퍼 현장으로가서 땀 흘리며 밥 쪄고 반찬 나누고 배식하고 설거지를 동참 해보세요!”라고 말이다.”



봉사하는 행복에 폭 빠진 최철우 지점장

글/ 최철우 자원봉사자(우리은행 호치민지점장)

# KBS 나눔국민대상 시상식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저는 무익한 사람이거든요...  
그동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해주신 25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에게 이 상을 돌리고 싶습니다.  
보상 없이 대가 없이 묵묵히 봉사해주신 자원봉사자들이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가 있었습니까?  
청량리에서 시작한 토종 N.G.O 다일공동체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아프리카 탄자니아까지 진출했습니다.  
원조 받는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국격에 맞게, 토종 N.G.O 다일공동체가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 기근과 질병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봉사하겠습니다.”



# 착한마음 사브리나, 힘내렴

쿤두치 채석장에서 일하는 8세 소녀, 사브리나

학교에 다녀오면 교복을 입은 채 할머니가 일하는 이곳에 옵니다.  
부모님이 안계시기에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 곁에서 일을 돕습니다.

자신의 상체보다 큰 양동이를 머리에 이고 맨발로  
채석장 이곳저곳을 다니는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사브리나, 지금 가장 힘든 게 뭐야?"  
"배가 고파요.."

'나는 배가 고프다.'라고 말하시는 주님의 음성 같아서  
가지고 있던 만다지(밀가루 삼각빵)와 물을 전했습니다.  
받아든 사브리나는 씩스럽게 웃어 보입니다.

착한마음 사브리나, 힘내렴..

쿤두치 채석장에서 돌가루를 뒤집어쓰고  
일하는 아이들에게도 다른 아이들처럼  
배고픔 대신 매일의 양식이  
무거운 양동이 대신 책가방이  
맨발 대신 발에 꼭 맞는 신발이  
더 잘 어울립니다.

사진제공 :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01 <다일복지재단> KBS대한민국나눔국민대상



02 <다일평화의마을> 피정 온 이홍선 부부

## 국 내 분 원 소 식

### 01 다일복지재단

#### 최일도목사, KBS대한민국나눔국민대상 포장 수상

사회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회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 포상하고 사회에 널리 홍보하여 대한민국 나눔 문화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상입니다. 1988년부터 가난하고 소외된 거리의 이웃들을 도우며 시작되어 현재 국내를 넘어 지구촌 곳곳에서 나눔과 섬김의 사역을 실천하고 있는 최일도 목사는 '재능기부' 분야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 박상원홍보대사 두번째 사진전 수익금 기부

박상원 홍보대사의 두번째 사진전이 10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청담동의 송은아트스페이스에서 있었습니다.

2009년 첫번째 사진전을 통해서 모아진 수익금을 다일공동체에 전달해주셔서 중국 다일공동체에 박상원도서관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아이들이 박상원 도서관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번 두번째 사진전의 수익금 일부를 기부해주셔서 다일공동체와 함께하는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 다일TV오픈

11월 1일 에브리온의 채널 '111번'에서 '다일TV'가 오픈을 합니다. 다일공동체의 국내, 해외의 다양하고 생생한 이야기들과 최일도 목사의 설교 등을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로 손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11월 11일 다,일! 다시한번 일어서는 날  
일반적으로 11월 11일은 빼빼로 데이라고 기억하는데 다일에게는 모든 숫자가 다 1인 다일의 날로 특별하게 다시한번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기념합니다. 오전에는 밤퍼 2층에 마련된 예배당에서 감격스런 서울다일교회의 창립예배를 드리고, 오후 3시에는 밤퍼 앞마당에서 이날 창립기념일을 맞은 세무법인 석성과 함께 1,111명의 법상공동체 어르신들과 기쁨과 감사의 축제를 합니다. 어느 날보다 더욱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준비해 나누는 날입니다.

### 02 다일평화의마을

#### 피정자의 집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목안리다일평화의 마을이 피정자의 집으로 운영됩니다. 누구나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쉼을 누리고 회복되시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됩니다.

#### 10월 피정자

이홍선(이른아침님)후원자님이 지친 몸과 마음에 새힘을 받고자 목안리에 찾아와 공동체의 조도, 대도, 만도의 기도생활과 노

동기도를 하면서 몸과 마을을 새롭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늘 강건하시고 복된 삶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 물품을 나누어주세요

목안리 다일평화의마을에 나누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누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도자기 굽는 전기 가마, 야생화 심을 도자기, 블루베리 재배 후원입니다.

### 03 설곡산다일공동체

#### 139기 아름다운 세상찾기 영성수련

10월 1일(월)부터 10월 5일(금)까지 은혜 가운데 열렸습니다. 41명의 수련생들이 아름다운세상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다 쏟아 깨우침을 주신 길 안내자이신 최일도 목사님과 김연수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마쳤습니다.

#### 139기 영성 벗님 모임.

10월 20일(토) 설곡산에서 139기 영성벗님 모임이 열렸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포항, 목포를 비롯해 원근각체에서 모인 23분의 벗님들이 영성수련을 받고 난 후의 삶에서 느낀 점들을 나누며 맑은 물 붓기를 하였습니다. 기모임의 비용 일체는 가장이신 축복님께서, 다음 140기 축제 비용은 부기장이신 조수아님이 섬기시고, 139기 회비는 천사후원금으로 드리겠다는 결정에 모두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03 <설곡산다일공동체> 139기 영상넷님들과 가을 산행 04 <예향어린이집> 조물조물 송편을 빚고 있어요 06 <네팔다일공동체> 제1기 미싱교실

**10월 방문자**

10월에는 인천순복음교회 찬양기타 반에서 매일예배 30명, 우리지구총교회 권사회에서 매일예배 15명, 기독교방송국 직원 수련회로 25명, 춘천중앙감리교회 부부세미나팀 25명이 영성과 침묵의 성자인 설곡산을 다녀가셨습니다. 가을과 겨울이 더 아름다운 설곡산으로 오십시오.

**04 예향어린이집**

**추석민속놀이 및 송편 빚기**

9월 28일, 예향어린이집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민속놀이도 체험해보고 추석에 먹는 떡인 송편을 고사리 같이 작은 손으로 조물조물 빚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제기차기, 사방치기, 비석치기, 투호던지기 등 처음 접해보는 민속놀이였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며 재미있어하고, 고운 한복을 입고서 송편을 예쁘게 만들어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덕분에 올해는 더욱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고 왔습니다.

**유아안전교육 - 교통안전교육**

10월 5일에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내에서 교통안전교육이 있었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의 주제는 신호등이 있는 길과 신호등이 없는 길에서 건너는 안전한 방법으로서 우리 친구들이 횡단보도에서 어떻게 건너야 안전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신호등이 없는 길에서는 운전하

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손을 번쩍 들고 건너야 함을 알아볼 수 있었던 안전교육 시간이었습니다.

**현장학습 - 올림픽공원을 다녀왔어요**

지난 10월 18일, 예향어린이집 친구들이 제법 쌀쌀해진 가을바람을 느끼며 방이동에 있는 올림픽공원으로 현장학습을 다녀왔습니다. 올림픽공원을 둘러보면서 넓게 펼쳐진 풀밭에서 신나게 달리기도 하고 가을이 되어 알록달록하게 색깔이 변해버린 나뭇잎들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0월 생일잔치**

10월에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의 생일잔치가 있었습니다. 생일을 맞이한 친구도, 축하해 주는 친구도 모두 함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닮아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친구들이 주는 생일선물을 받고 생일 맞은 친구들의 얼굴에 함박웃음이 가득했던 즐거운 생일잔치였습니다.

**해 외 분 원 소 식**

**05 미주다일공동체**

Farewell 김은향 간사, Welcome 김고운 실장  
그동안 미주다일공동체 간사로 수고하셨

던 김은향간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9월 말로 사임했습니다. 열악한 미주다일공동체 상황 가운데도 열심히 사역하신 김은향 집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후임으로는 한때 미주다일공동체에서 사역했던 김고운 실장이 다시 미주로 복귀했습니다. 영육 간에 강건해서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06 네팔다일공동체**

**여성의 희망찬 자립을 위한 미싱 교실**  
빈민촌 여성들을 위한 미싱 교실이 드디어 10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교실을 통해 수입이 없던 여성들에게 미싱을 배워 서서히 작은 일부터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첫 과정으로 여성들에게 필요한 대안생리대 제작을 가르치고, 다음에는 천으로 다양한 아이템 만들기 교육을 마치면, 작은 가게도 마련하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제1기 미싱 교실에서는 10명의 여성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져 교육기회를 얻지 못한 많은 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제2기 미싱 교실에는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도록 준비하려합니다. 미싱 교실을 위해 후원해주신 뉴욕의 박미자권사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2기 미싱 교실을 위해 후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미싱 교실을 통해 희망이 생겼다고 참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아 함께 행복합니다.



07 <베트남다일공동체>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아이들 08 <중국다일공동체> 한국을 방문한 준호

**비행기 추락사고와 특별 밥퍼**

지난 9월 28일 카트만두에서 히말라야로 가는 비행기가 공항에서 출발하자마자 빈민촌 마을 공터에 떨어져 비행기에 있던 19명이 모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추락 사고를 처리하는데 거의 2주가 걸렸습니다. 네팔다일공동체에서는 이날부터 사고처리가 끝나는 날까지 매일 경찰, 군인, 사고수습요원들을 위해 특별 밥퍼를 했습니다. 평상시 저희들을 유심히 지켜보던 그들이 2주간의 밥퍼 사역을 통해 저희에게 큰 관심을 갖게 되고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고의 유가족들에게 우리 주님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일대일아동결연 - 교복 및 구두 지급**

매일 밥퍼에 오는 400여 명의 아동들 중 90여 명의 아동들이 일대일아동결연을 통해 따뜻한 밥을 먹으며 학교에 다닙니다. 또한 원활한 학교생활과 학업증진에 필요한 학교입학비, 매월학비, 교복, 구두, 운동화, 책가방, 책, 공책, 연필 등을 아이들에게 전합니다. 10월에는 네팔 최대명절인 뉘타인축제(네팔의 추석)를 맞아 우리 아동들에게 새 교복과 구두를 선물했습니다. 아동들이 새 구두와 교복을 입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저희들도 참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이 아동들의 후원자님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07 베트남다일공동체**

**베트남의 추석**

베트남도 한국처럼 음력 8월 15일에 온 가족이 모여 추석을 지냅니다. 한국은 추석에 송편을 먹지만 베트남은 동그란 모양의 월병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추석과는 다르게 베트남은 어린이를 위한 날입니다. 제2의 어린이 날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이날은 아이들에게 별 모양의 등불이나 만화의 캐릭터 같은 화려한 등불 등을 선물하는데, 베트남다일공동체에서도 만화 캐릭터 등불과 과자를 준비하여 마을 어린이들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기뻐하는 모습에 나누어 주는 손길이나 받는 손길 모두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 가위만 갈아라”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08 중국다일공동체**

**최준호 한국방문**

심양의 찬양학교에 다니고 있는 준호에게 졸업생 중 2명에게 한 달간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최일도 목사님을 찾아가 인사드리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돌아온 준호는 ‘졸업하고 사역지로 나가기 전 한국에서 너무 큰 사랑을 느끼고 돌아와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라고 합니다. 온 맘

로 안아주시고 최일도 목사님, 반겨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신 다일가족들, 너무 감사합니다.

**명학이의 결연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중국다일공동체 명학이는 직업고중 자동차과 2년을 마치고 마지막 1년을 연길 기아현대에서 열심히 실습 중입니다. 명학이의 소식과 함께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 원하는 마음에 명학이의 이야기를 다일블로그에 올렸는데 그 글을 본 호주에서 후원을 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중국 1대 단기 선교사였던 문서영님입니다. 후원자님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강성이 호적 만들기 시급**

다일어린이집의 강성이는 아직 호구부(호적) 없습니다. 당연히 학교는 다니고 있으나 학적도 없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강성이가 고이라는 증빙을 누구도 해주지 않는 등 말할 수 없는 사정이 많아 현지 정부기관서 호적 만들어 주는 것을 꺼리고 미루고 있습니다. 강성이는 작문 실력이 월등해서 어린이집에도 여러 번 기재되기도 해서 최근 연길 주 대회에 참가 추천을 받았으나 호적이 없어서 가지 못하게 되자 강성이의 상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강성이의 호적이 속히 나오도록 특별기도 부탁드립니다.





09 <캄보디아다일공동체> 충신교회 의료봉사팀 10 <탄자니아다일공동체> 아프리카 이웃들과 함께 11 <필리핀다일공동체> 후원자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 09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 르은이 귀국

한국에 가서 심장병 수술을 받고 회복한 르은이가 드디어 캄보디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기 전의 모습과 너무도 달리 건강하고 밝고 활기에 넘친 르은이를 보면서 르은이 부모님과 저희들은 모두 깜짝 놀라며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오랫동안 병을 앓고 지내는데 어찌할 방도를 몰라 다일천사클리닉을 찾아온 이 아이를 살리시고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수술을 맡았던 삼성서울병원과 기도해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해주신 너무나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Concert—"Let's share our love"

캄보디아다일공동체에서 10월 27일(토) 오후 6시 앙코르 코엑스에서 자선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캄보디아 다일공동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첫 번째 콘서트로 중창단과 방과 후 교실의 워십댄스반, 태권도반 아이들도 멋진 무대를 위해 맹연습을 했습니다. 스태프도 준비 및 홍보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셔서 이날의 콘서트는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자리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충신교회 봉사

충신교회에서 의료봉사, 이미용 봉사를 하셨습니다. 프놈프라움, 쯙크니어, 뿌억미를

의 환자들을 진료하고 약을 나누었고 노인 분들에게는 밤을 새워가며 틀니를 만들어 주시고, 눈이 나빠진 아이들을 걱정해주시며 안경도 한국에서 만들어 보내셨습니다. 또한 미용봉사자 분들은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곱게 머리를 단장해 주었습니다. 힘써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다일천사클리닉을 찾아온 사망수수 청년

센터 앞 프놈프라움 시장에서 사망수수를 파는 티아라 라는 청년이 사망수수 줌을 짜는 기계에 손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다일천사클리닉을 찾아왔습니다. 형편이 너무 가난하고 현지 병원비도 비싸 치료를 못하던 중에 티아라를 돕고 싶다는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후원금은 티아라의 병원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음 아픈 일들에 함께 아파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가난한 청년들과 가족들에게 살아갈 소망과 위로를 전해주시는 동역자분들께 감사와 은혜를 전합니다.

## 10 탄자니아다일공동체

### 체류비자발급

이민국에서 체류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체류 허가기간은 2년입니다. NGO등록에 이어 체류비자의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힘입어서 감사드립니다.

### 탄자니아 비전트립 일정연기

다일공동체의 설립자, 최일도 목사님과 함

께하는 탄자니아다일공동체 개원 예배와 비전트립이 더욱 알차게 준비되기 위하여 내년 1월로 변경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대륙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많이 많이 오세요.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Karibu sana! (카리부 싸나! 열렬히 환영합니다!)

## 11 필리핀다일공동체

### 도서관 프로젝트 공모전 합격

국제개발협력민간단체협의회에서 주최한 '프로젝트 공모전'에 도서관 프로젝트를 응모하여 최종 합격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제 꿈에도 그리던 아이들이 읽을 책들을 마음껏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응모해서 한번 낙방한 쓰라림이 있었기에 더욱 더 기쁘고 값진 선물입니다. 우리 동네 아이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풍성한 성탄 선물이 될 것입니다. 국제개발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후원자님께 성탄카드 작성

아이들이 미국과 한국의 고마우신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성탄카드를 썼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와 영성한 그림이지만 후원자님께 무언가를 보답하곤 고픈 마음은 하나 가득입니다. 예쁘게 받아주세요.



"나는, 자랑스러운  
다일의 자원봉사자"



(주)SCL 첫 밥퍼 봉사 오셨습니다! 나눔에 동참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행복합니다. 또 오세요~



많은 가을날 세무법인가은에서 기쁘게 봉사해 주셔서 어르신들 마음까지 맑아졌습니다.



금오초등학교 동창회는 매번 봉사하실 때마다 십시일반 후원금도 모아 오십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밥퍼도 매번 감동입니다.



크룩스코리아에서 봉사 온 많은 젊은이들의 열정적인 에너지가 어르신들께도 전달되었나봅니다. 이날 어르신들도 에너지 충전 만평!!



한국외식중앙회에서는 어떤 것보다 설거지를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다음번엔 자장면을 만들어 대접하고 싶다는 그 마음 참 감사합니다.



어리다고 알아보지마세요!! 덕산중학교 친구들이 열심히 뛰어준 덕분에 오늘도 밥퍼를 잘 마쳤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용환 차관과 가족들이 함께 밥퍼에 오셔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섬김의 가정입니다.



삼성 SDS에서 첫 봉사 오자마자 팔을 걷어붙이고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봉사해 주셨습니다.



밥퍼에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하루배식비를 준비하고 봉사도 직접 음식도 만들며, 이날 하루를 동부메탈이 책임졌습니다.



#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들에게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 2012년 9월 23일~10월 22일 국내통장 입금 기준입니다.

## 10월 신규후원

(주)에스씨엘, (주)열린세상커뮤니케이션, (주)유영테크, D.AHN, JohnKim, 강릉18전투비행단기독교회 아동부, 광영경, 국순애, 김경신, 김경희, 김광식, 김대영, 김병웅, 김보미, 김이사, 김연수, 김정자, 김주희, 김지영, 김태훈, 김희일, 김희혜, 나이스신용평가, 남명웅, 남상윤, 남영수, 박미혜, 박수자, 박시현, 박영희, 박중희, 박진영, 박찬익, 박채린(박정식), 백금자, 백사무엘, 백혜원, 성인경, 세무법인기은, 손복희, 송옥경, 스티브, 신동혁, 여정자, 오수연, 유지은, 유평준, 이귀임, 이동기, 이명주, 이민지, 이세재, 이순옥, 이연아, 이용철, 이지선, 이지윤, 임성호(조정자), 전은영, 정철원, 조현우, 진재욱, 채명옥, 채희경, 최경옥, 최명옥, 최상례, 최영원, 최훈석, 한영란, 한창희, 홍서연, 황지현(에온피아노)

### باطرنا눔운동 후원

[후원금]

에스케이렐링크, 김수일, 외환은행나눔재단, 러시앤캐쉬, 수도권산악회, 일산은혜교회, 국순애, 이종욱, 박종일, 김보나, 최상례, 최성봉(서울메트로), 김성철, 황귀중, 서장선, 엠엔글로벌, 양순화, 안성희, 흥남숙, 이영숙, 윤순옥, 최주영, 에이엠지코, 최경근, 광영희·박동균, 선·정혜영, 대한지적공사, 국방홍보원, 이일옥, 동부문화재단, SCL, 태광(주)티씨스, 김용환(문체부차관), 에스케이렐링크, 광현교회, 신민숙, 권혜진(휘슬러비즈), 정신남, 윤현숙, 유민자(르브피플), 소망봉사팀, 홍경화, 세무법인기은, 금오초등학교 동창회

[후원물품]

9/21 김수일 - 과일 4박스  
 9/27 양지농장 - 고구마순 1박스  
 9/27 가나안덕 - 오리훈제 7박스  
 10/1 서울우유 - 우유 1,008개  
 10/11 두리반 - 김치 1박스  
 10/11 국민은행성동지역본부-중이컵 4박스  
 10/11 국민은행성동지역본부-치약 150개  
 10/13 샘복지재단 - 영양식 338박스  
 10/16 나눔스토어 - 쌀 10KG 2포대  
 10/16 KT&G복지재단-쌀 20KG 10포대  
 10/17 서울우유 - 우유 1,008개

### < 해외분원 >

#### 중국다일공동체

[방문&후원]

김성재(Obey&Praise), 이숙의(시카고 스마일, 스마일피기), (주)소명철강, 이병준, 이현신, 평쌍 후원자, 대전동안교회, 이은준, 한기모, 차지훈, 지춘란, 양자선교회(대표 허에스더목사), 한해연, 박예진, 심형, 이효원, 김학용, 김철민(남양주다일교회), 남양주다일교회 제남선교회, 영광제빵(빵 후원)

#### 베트남다일공동체

[나눔회원]

한글로벌(600만동), 대우INTERNATIONAL, 사이공한인연합교회, 박희상, 윤은하, 보민건설, 포스코P&S

[정기후원]

최혜림, 최혜인, 최기흠, 남승현, 김순자, 송윤서, 배준익, 추원미

[물품후원]

오리온(초코파이 10상자), 도넛도넛(도넛 113개), 대우INTERNATIONAL(바나나), 포스코ICT(쌀 40kg+바나나), 농심(라면 160개)

[모금함]

롯데마트2 플레이타임 413,200동

[자원봉사자]

포스코베트남 김동호·조윤현·김대업·최진혁 외 30명, 포스코ICT 김광석·이택희 & 김성태 외 10명, 대우INTERNATIONAL 최시호 외 7명, 포스코SOUTH ASIA 서도석·김중성 외 5명, 포스코P&S 전남욱, 제주새생명교회 김태수·서유정·최혜인·박진경·김은정·오채린·조예림·송채린·이창순·배진영

### 필리핀다일공동체

[방문&후원]

광주양림교회, 신동이, 전용민, 지일환, 전영철·정수현, 필리핀PTS한인교회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천사후원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캄보디아다일공동체

평생지기, 진성교회 캄보디아선교팀, 서울홍성교회 조정숙집사, 공s배낭지기, 광주북구청 비서실 김순권, 광주다일교회 최인옥장로, 방송통신대 청소년교육 이현수·현영례, 부산은성교회 김태승목사, 엄상렬, 허환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고창근, 광양중앙교회, 하나투어 김혜란, 원덕가족, 이희웅, 이재호, 홍사모 회원일동, 인천연수구의회의원장 박기주, 인천연수구 이창환, 주재훈, 대한기독교감리회 청년관 일동, 프놈펜제일교회, 조은학교, 유종인, 설나현, 김철민, 송영범, 손혜진, 토마토은행, 한국장학재단1기 장혜진·한호승, 베트남호치민시 별빛국제학교 5학년, 그레이시아카데미(중 1 10기), 유성수·김정숙·유명현·유민서, 까도, 구다니엘(채드워국제학교), 최성규(채드워국제학교), 충신교회, 건영택배 서울경인지역상조희, 이재아·이유진, 이형근, 광주시청 해외연수팀, 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서귀포 법환장로교회, 고세인, 호원대사회복지학과 전천운 외 14명, 임마누엘교회 황채순, 부천기념교회 손선영, 무명 3명

다일은 여러분의 맘과 정성이 담긴 귀한 후원금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사역에 앞장서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일복지재단 후원안내 ARS 060-708-1588

### 다일복지재단 후원 방법 안내

#### 1. CMS(자동이체)

-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다일복지재단(02-2212-8004)으로 전화주시면 CMS 신청이 가능합니다.

#### 2. www.dail.org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후원에 대하여 알 수 있고 손쉽게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후원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3. 착한소비 행복한 나눔

##### • 사랑의 보험

매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을 기부플랫폼에 견적예약 하면 보험만기 1개월 전에 8개 보험사 비교견적을 제공하여 가장 좋은 가입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동시에 수익금의 30%(최대 3만원)가 다일공동체에 가입회원님의 이름으로 기부됩니다.

##### • 사랑의 꽃배달 서비스

다일공동체를 후원하시는 회원님들이 다일플라워에서 꽃을 주문하시면, 사용금액의 20%가 다일공동체로 기부됩니다. 꽃구입과 함께 후원이 되는 사랑의 꽃배달 이용방법은 dail.flowerzip.com에 들어가 회원가입 후 주문합니다. 꼭 회원가입 하셔야 주문회원님의 이름으로 기부가 됩니다.

모든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체 참여

후원 문의 TEL 02-2212-8004

FAX 02-2212-8032

www.dail.org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1동 497-77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미주지역 후원계좌

- 은행이름 : First Intercontinental Bank
- 은행번호 : 06119794
- 계좌번호 : 1510014622
-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 은행이름 : Bank of America
- 계좌번호 : 334001270347
-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 (한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BOFAUS3N
- (미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026009593
- 국내후원계좌 국민은행 : 467701-01-053115

미주다일공동체 후원 문의 Tel 1-770-813-0899  
Fax 1-770-813-0133

DAIL Community of USA  
P.O BOX 337 Suwanee, GA 30024-0337

### 국내 및 해외 분원 연락처와 후원계좌

#### 밥퍼나눔운동본부 문의 전화 02-2214-0365

E-mail babfor@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901-04-037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설곡산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31-585-2004

E-mail ahtp7749@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901-04-064419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다일천사병원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Sunyou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01-0975-87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다일작은천국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emhok@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245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다일평화의 마을 문의 전화 031-568-5004

E-mail ahtp7749@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245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중국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6-433-753-8004

E-mail mookanri@dail.org

후원계좌 기업 017-033086-01-02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베트남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4-12-6317-7912 070-8220-6160

E-mail lplhome@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9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캄보디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55-78-708080 855-12-808861

E-mail lightk@dail.org

후원계좌 씨앤티 국민 467701-01-142565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프놈펜 국민 467701-01-14257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필리핀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70-8220-3278 63-927-560-7346

E-mail gracekeo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네팔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977-9841-384069

E-mail babperdail@hanmail.net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5744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탄자니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70-8220-3669 255-786-740-003

E-mail bcj337@dail.org / dail8004@gmail.com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3395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다일영성수련



11월 11월 27(화)~12월 1일(토) 제140기 아세찾기  
 12월 12월 7(금)~12월 9일(주일) 제2기 축복수련

■ 11월부터 아름다운 세상찾기 및 영성수련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내 인생에서 못해본 여행이 딱 두가지 있다. 신혼여행과 우주여행  
 신혼여행이 얼마나 멋질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다일공동체에서 경험한  
 영적우주여행,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라는 영성수련은 여태까지  
 내가 한 여행중에서 가장 멋지고 황홀한 여행이었다.”

-한비야(전 월드컵전 구호팀장)

## 설곡산 다일공동체 시설이용안내

설곡산다일공동체는 침묵의 성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되는 공동체 정신과  
 나사렛 예수의 영성을 침묵과 노동속에서 구현합니다.  
 화해와 일치를 위해 섬김과 나눔을 살아가기 원하는 분과  
 치유와 회복을 위해 쉬을 원하시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 설곡산 다일공동체에 오시면 할 수 있는 일들

예수 제자도를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D.T.S(Discipleship Training School)훈련을 받을 수 있고,  
 나사렛 예수의 영성생활을 일상의 삶속에서 수련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노동기도 수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피정, 교회와 각종 단체의 수련회 및 세미나 장소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곡산다일공동체 T: 031)585-2004  
 www.dail.org H: 010)7756-8004

설곡산다일공동체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설을 단체와 교회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피정을 통해 심과 사색과 명상 및 침묵기도를 자유롭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영성수련(대관 및 개인피정) 신청은 수련 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 마감하며,  
 수련비 입금(농협 351-0166-0367-83 예금주:이태형)으로 등록 완료됩니다.  
 영성수련은 한 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 손 안에서 만나는  
다일공동체의 다양한 “감동스토리”  
다일TV “채널 111번”

다일공동체의 다양한 정보와  
현장의 진한 감동이 살아있는  
다일공동체 모바일 TV  
오픈 11월 1일...!!!



**시청 방법**

스마트 폰에서 애플스토어 또는 구글 마켓에서 ‘에브리온TV’ 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111번 다일 TV채널 선택

모바일 앱을 통해 다일공동체를 만나실 때에는 정보이용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이동통신사별로 무선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되며,

Wi-Fi를 이용할 때에는 무선데이터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